

바울의 이방인에 대한 세 번째 선교 여행에 관한 기사는 사도행전 21장 16 절에서 끝난다. 약 10년간의 세 번째 선교 여행 동안, 바울은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였으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사도행전 9:15)서 예수님에 대해 담대하게 간증하였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3장 35절까지는 이 선교 사업의 마지막과 가이사랴에서 로마인 통치자인 벨릭스 앞에 그가 나아갔던 일 사이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선교사 바울의 담대함과 어떤 어려운 상황 아래에서도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모든 기회를 이용하는 그의 능력에 주목해 본다.

반원들에게 세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고 있는 선수들을 생각해 보게 한다. 그들이 자신들의 경기에서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선수가 될 때까지 수년간의 연습, 코칭, 다시 배우기, 체력 강화 훈련, 경쟁 및 향상을 통해 경기의 기초를 배우는 것 등 그들의 단계적인 준비 사항에 대해 토론한다.

- 선교사는 어떻게 최고 단계에 이른 운동 선수와 같은가? (국가대표, 준비, 훈련, 경쟁, 성과, 열매, 비교),
- 선교사 훈련에 어떠한 단계적인 준비가 필요한가? (영적, 정서적, 신체적, 재정적 각 단계의 발전 필요) (교성4:6) “신앙, 덕, 지식, 절제, 인내, 형제애, 경건, 자애, 겸손, 근면을 기억하라.” (교성11:21) “내 말을 선포하려 힘쓰지 말고 먼저 나의 말을 얻으려 힘쓰라. 그리하면 네 혀가 풀리리라. 그런 후에 네가 원하면, 너는 나의 영과 나의 말, 참으로, 사람을 확신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리라.”

바울이 짧은 시간에 모든 이방인들에 대한 주님의 사도이자 선교사가 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주님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를 준비시키셨다.

- (행9:6) 주님은 사울에게 무엇을 하도록 말씀하셨는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 (행9:15~16) 주님은 그의 성역에 사울을 부른 목적에 대해 아나니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다음 질문들을 칠판에 적는다.

1. 바울의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행18:3 참조)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2. 바울은 어떠한 언어를 말할 수 있었는가? (행 21:37~40 참조)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사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음이 아닌 길리기야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3. 바울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행21:39 참조) “나는 유대인이라 소음이 아닌 길리기야 다소 시의 시민이니” 현재, 터키의 남부 도시이며, 지중해로부터 약 19km 정도 북쪽에 떨어져 있다. 바울당시에는 50만명정도가 거주하던 큰 항구 도시였다. 현재 인구는 8만 명
4. 바울의 선생은 누구였는가? (행22:3 참조)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야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자라” 저명한 유대인 랍비, 사도들이 잡혔을 때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 두라고 말한 바리새인 유픽교사, (행5:33-42 참조)

5. 바울은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가? (행22:25~29 참조) “가족 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들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심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군인들은 복무를 마치면 로마시민권을 받았음, 바울의 부친도 로마시민이었음, 커다란 특권, 로마 시민은 정당한 재판 없이 처벌을 받지 않았다. 바울이 벌립보 감옥에서 부당한 처사를 당했을 때에 그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감옥의 당국자들이 당황해 하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행 16:35-39)
6. 바울이 받았던 종교적인 훈련은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26:4~5 참조)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반원들에게 답을 찾아보게 하고, 그것을 칠판에 쓴다. 그런 다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바울이 사도와 선교사가 되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 토론한다.

- 1) 직업(재정적 준비), 2) 언어(영어, 국어), 3, 5) 한국인, 4) 스승(부모, 교사, 지도자), 6) 엄한 생활(절제, 자기관리)

우리도 또한 교회의 부름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다음 질문들을 한다.

-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도록 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부모 및 지도자의 권고, 명상)
-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준비하는 데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부모, 교사, 지도자, 하나님, 성신의 인도)
-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준비 사항이 똑같은가? (신체적, 세미나리 이수)
- 학교 교육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설득력, 대화의 기술, 국어)
- 우리는 교회의 부름에 완전하게 준비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부지런함, 영으로 충만, 게으름, 믿음 없음)

닐 에이 맥스웰 장로의 다음의 말씀을 읽고 토론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대해 우리에게 물어봄으로써 시작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증명하는 경우, 그분은 우리의 능력을 증대시켜 주실 것입니다.” (닐 에이 맥스웰, “중요한 것은 봉사이지, 지위가 아닙니다”, Ensign, 1975년 7월호, 7쪽)